

비트코인, ETF 평균 매입가 턱밑... 투자자 손익 '갈림길'

ETF 평균 매입단가 8만1500달러
6.8억달러 유출 후 13일 유입 전환
반등 vs 침체론... 엇갈리는 시장 전망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작다.” (캠벨 하비 듀크대 경영대학원 교수 논문 ‘금과 비트코인’, 2025)

“비트코인은 분명 다시 10만달러를 넘어 여섯 자리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은 6만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고, 거기서 반등했다고 본다.”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업주 겸 이사회 의장, 13일 블룸버그TV 인터뷰)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비트코인은 개당 8만3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최고점(12만6251달러)에서 30% 넘게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8만5000~21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BIT(옛 매트릭스포트)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시장에서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암호화폐 침체기)’나 ‘크립토 스프링(Spring, 황황기)’이라는 용어를 내놓는다. 하지만 투자자를 괴롭히는 질문은 ‘비트코인이나 현물 비트코인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단가 부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사도 되나, 아니냐. 적잖은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의 경우 현재 시세가 평균 매입단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14일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집계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의 평균 매입단가는 약 8만1500달러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시세와 불과 2% 안팎의 격차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 ETF 애널리스트도 지난달 21일 ETF 보유자의 평균 매입단가를 비트코인 1개당 8만1722달러로 추정했다.

세이파트는 당시 “평균적인 비트코인 ETF 보유자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수익권에 복귀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안 돼 비트코인은 다시 이 가격대 부근까지 내려왔다. 글래스노드는 8만1500달러 선이 무너지면 다음 주요 가격대로 ‘실질 시장 평균가’인 약 7만7500달러를 제시했다.

출범 이후 전제로 보면 결과가 다르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소스밸류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13일(현지시간) 기준 572억2000만달러, 순자산은 1069억8000만달러다. 누적 순유입액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

스트(GBTC)가 ETF로 전환될 당시 보유하던 자산 287억달러(더블록 집계)를 더하면 ETF에 투입된 자금은 약 859억달러로, 순자산이 이보다 210억달러(약 28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GBTC 자산을 ETF 전환 시점 가치로 반영한 단순 계산이다. 이미 환매한 투자자의 실현 손익도 포함돼 있어 현재 보유자의 평가손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자금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소스밸류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약 6억8000만달러가 순유출됐고, 12일(현지시간)에도 65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그러나 13일에는 피델리티 FBTC(1억306만달러)와 블랙록 IBIT(6589만달러)를 중심으로 1억7562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물 ETF와 거래소 자금 흐름은 가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단기 수급 지표”라며 “지난주 유출 또한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방향성을 단정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평가구간에 위치하며, 현물 ETF 체계와 토큰화 확산이라는 구조적 수요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 변수는 금리다. 연방준비제도(Fe

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이날 밤(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발표되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3.7%)를 웃돌 경우 추가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한편 국내 투자자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증권사의 해외 현물 비트코인 ETF 중개를 막고 있다.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지만, 1년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절차대로라면 법안소위로 가야 하는데 앞에 밀린 법들이 많아 아직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칙이 중요하다 보니 그 논의가 우선돼 뒤로 밀려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나가던 투자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자는 게 법안 취지 중 하나”라며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STO) 제도가 잘 안착하는 게 우선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

삼성증권, 초고액 자산가 200가문 달성

패밀리오피스 고객자산 55조 넘겨
전담 자문 조직 통해 맞춤 솔루션 제공

삼성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가 고객 200가문, 고객자산 55조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층은 전통적인 기업 오너에서 기업 매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 엑시트(Exit) 오너, 신흥 기업 오너, 초고액 개인 자산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엑시트 오너 고객은 3년 전보다 약 3배 늘어나며 주요 고객군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자본과 별도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자산가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군이 다양해지면서 자산관리 수요도 세분화되고 있다. 기업 지분을 중심으로



삼성증권

로 자산을 보유한 전통 오너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한 신흥 오너, 기업 매각으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엑시트 오너는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목적, 승계 계획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빗뱅크(PB)와 본사 투자관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투자관리형 자산관리(Investment Management Model)’ 체계를

를 운영하고 있다. 가문별 전담 자문 조직인 ‘커미티(Committee)’도 운영한다. 사내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연례 미팅과 수시 자문을 통해 고객의 자산 현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투자·세무·승계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관투자자수준의 운용 프로세스를 적용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서비스도 주요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OCIO 운용 규모는 9000억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아폴로(Apollo), 블랙스톤(Blackstone), KKR 등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GP)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고액자산가에게 다양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학개미, 美 반도체 ETF 집중 매수

해외주식 Click

SOXL에 13억달러 배팅

서학개미들의 투자금이 미국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로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압도적인 순매수 1위에 오른 가운데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와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매수세가 이어졌다. 초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주 ETF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공격적인 투자와 위험 분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 EIBro)에 따르면 지난 6~12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재액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로 집계됐다. 순매수액은 13억6746만달러로, 2위인 ‘아이셰어스 0~3개월 미국국채 ETF(SGOV)’의 6367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SOXL은 미국 반도체 관련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도 확대된다. 특히 일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구조상 장기간 보유수익률이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의 3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매수세는 레버리지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반도체 ETF(SOXX)’가 4629만달러 순매수되며 4위에 올랐다.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4316만달러로 5위,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3235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인텔도 2582만달러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SOXL을 포함한 이들 반도체 관련 5개 상품 중목의 순매수액은 15억2017만달러에 달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직전 전회 기간인 9월 28일~10월 5일과 비교하면 투자 대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당시 순매수 1위는 알파벳(7163만달러)이였으며 S&P500 ETF(5826만달러), 테슬라(5720만달러), 샌디스크(5716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관련주인 샌디스크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이번에는 개별 종목을 넘어 업종 전반의 상승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로 매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투자에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이어졌다.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SGOV는 6367만달러 순매수로 2위, 슈왈 미국 배당주 ETF(SCHD)는 4809만달러로 3위에 올랐다. 두 상품은 직전 기간에도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와 함께 배당·단기채를 통한 위험 분산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67% 하락했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3.88% 내렸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술 개발 소식과 고금리 부담,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리츠증권, 칸톤재단과 금융자산 토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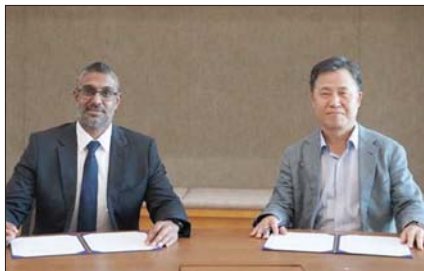
인프라 활용 방안 단계적 검토

메리츠증권은 칸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의 운영 재단인 칸톤 재단(Canton Foundation)과 디지털 자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과 비브 디와카르(Viv Diwakar) 칸톤 재단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한국 내 금융자산 토큰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옮기는 작업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칸톤 네트워크의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내 자본시장에 들여오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메리츠증권은 칸톤 네트워크 생태계의 참여기관과 교류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정비되는 속도에 맞춰 칸톤과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이 개발한 칸톤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기관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왼쪽부터)비브 디와카르 칸톤 재단 대표와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칸톤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 정비 상황을 살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